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지난 주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6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
식사 친교 후에 6월 구역강사 훈련모임이 있습니다.
- 후원 찬양제 행사 안내
주님의 식탁 선교회 주관으로 제 4회 은혜 나누기 후원 찬양제 행사가 주님의 식탁 선교회 주관으로 6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 시무)에서 열립니다.
- 전교인 야외예배 안내
일시: 6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Bethpage State Park
(99 Quaker Meeting House Rd, Farmingdale, NY 11735)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우드사이드 구역 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10일)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입니다.

6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6/03		김유순	우드사이드 구역	한순자
6/10	김유신	배인순	롱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본문 : 열왕기상 18장 20~24절

기도제목 : 1.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
2.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3.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지는 삶.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50%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님이 인구 숫자의 비율로 드러났고 더 나아가 성경적인 모습들을 상실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미국도 유럽의 나라처럼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도 작아져 갈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과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좇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좇아라. 이 질문에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1. 누가 하나님이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단절되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게임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각 각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뜯 후에 나무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면 그렇게 한 신이 진짜 하나님임이 증명되는 것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가 쌓았던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쌓았던 제단에는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 바알은 그들을 도와 줄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밝혀졌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불로 응답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신은 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진리이며,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2. 나에게도 불이? 이시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이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불을 내리시는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은 차별적으로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개인과 아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겉 모습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느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필립 양시는 그에 대한 답을 한국 교회의 기도와 중국 교회의 고난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의 전도 이 세 가지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3. 나가는 말 -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오늘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세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없는 종교인으로 그저저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통계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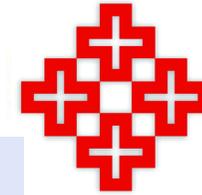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6월 3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기도: 김유순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8번(시편 67편)	
찬 송 Hymn	340장	
기 도 Prayer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열왕기상 18장 20~24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173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